

# 곡성, 우수 농산물 활용 '건강차 3종' 제품화 성공

### 군, 호박팔차·돼지감자차·무차 세트 생산·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함...온라인쇼핑 판매

곡성군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지역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화 성과로 호박팔차·돼지감자차·무차로 구성된 '건강차 3종 세트'를 생산·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지역 농업인이자 가공인인 김향란 진향건강원 대표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침출차 제품으로, 원물의 풍미와 특성을 살린 건강

지향 차류 상품이다. 국내산 재료를 엄선해 자연의 건강한 맛을 담아낸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원료 특성에 맞는 건조·배합·침출 조건 설정과 생산 공정 안정화, 포장 구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아이디어 단계의 차류 제품을 실제 판매 가능한 가공 상품



으로 구현할 수 있었으며, 소량 생산 농산물이나 일반 농산물도 가공기술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원료 재배부터 가공·포장까지 전 과정이 지역 기반으로 이뤄지며, 지역 농

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호박팔차는 부드럽고 달백한 맛으로 일상적인 건강 관리용 차로 활용되며, 돼지감자차는 식이섬유와 이눌린 성분이 함유된 원료로 알려져 있다. 무차 역시 깔끔한 풍미와 함께 따뜻하게 즐기는 전통 차류 원료로 친숙하게 소비되고 있다. 최근 건강한 식생활과 국산 원료 기반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차 3종 세트 역시 건강 지향 소비층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차 3종 세트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비롯해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

몰 '곡성몰', 자사 스마트스토어,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김향란 대표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차 제품으로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직접 가공 기술을 배우고 상품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vns1@gwangnam.co.kr



다양한 문화 체험으로 청소년 정서 함양 장흥군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는 최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뽕기케이크만들기'와 '글라스아트 소품 제작' 체험활동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제공=장흥군청

## 광양, 창업기업 보육·사업화 기반 마련

###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정

광양 혁신일반산업단지 내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BI)로 신규 지정됐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로, 입주 공간 제공과 함께 연구·개발 인프라, 경영 및 기술 자문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7943㎡,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이차전지, 스마트 제조,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24개사가 입주해 있다.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지정 이전부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입주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인증 획득, 시제품 제작 등 3억12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했으며, 입주기업 총매출은 입주 전 대비 약 35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계기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화순군·장흥군·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도박 예방과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 여수, 친환경 전기선박 시대 선도한다

###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공모 선정

여수시가 정부 공모 선정으로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해양배터리의 성능·안전성

·수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실증사업으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 필요성이 커지면서 IMO(국제해사기구) 기준 대응을 위한 표준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해양은 극한 환경에 노출돼 배터리 성능 저하와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며, 관련 기업 12개사 우위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배터리 운영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AI 기반 상태진단 및 수명 예측 기술 개발, 디지털트

윈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구현, 산업계·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과 해양 드론, 수중 로봇 등 다양한 해양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 가능해 향후 글로벌 해양배터리 시장 경쟁력 확보와 국내 기술 보급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의 해양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양에너지 활용기술을 개발해 산업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보성, 도박문제 고위험군 통합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협약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순군·장흥군·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최근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지역사회 도박 문제 예방과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가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유 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군민의 정신건강·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망 구축, 도박 문제 예방·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구조·보

호 및 사례 연계, 도박 문제 고위험군 대상 상담·심리치료·의뢰·법률 자문 등 통합 지원,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생명 존중 문화 확산, 기관 간 정보 공유·홍보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 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도박 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도박 문제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 정신건강 상담, 사례 관리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 고흥,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그냥드림사업' 시행

고흥군은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사업'을 추진한다. 그냥드림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주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명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은 고흥군푸드뱅크 또는 주주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첫 방문 시에는 자가점

검 체크리스트 등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을 거쳐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을 거쳐 연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공적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까지 폭넓게 발굴해 긴급히 필요한 물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초푸드뱅크 및 읍·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연계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냥드림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촘촘히 살피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 장흥,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근절 총력

### 부서별 대응 체계 점검... "군민 모두 누리는 공공자산"

장흥군은 최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TF 점검회의(2차)'를 개최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난안전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행복민원과 등 4개 부서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영환 장흥군 부군수는 회의 후 대표적인 적법 지역인 국가하천 탐진강 일대 부산면 부춘리를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행위자를 만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탁상행정에서 벗어

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앞으로도 관계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해 청정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영환 부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공간이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다"며 "불법 점유로 인해 군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 순천,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 추진

순천시는 한우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등록 지원사업, 인공수정 우량 정액비 지원사업,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한우 개량과 유통 관리를 위해 '한우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우 등록은 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며 계획교배와 우량 개체 선발, 도태 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등록은 기초등록·혈통등록·고등등록 등 3단계로 나뉘며, 등록비는 각각 두당 6000원, 8000원, 1만원이다. 시는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인공수정 우량 정액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가가 인공수정 과정에서 구입하는 보증액수수(KPN) 우량 정액 비용을 지원해 우수 소가 생산과 농가 맞춤형 개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우 품질 고급화 유도를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도축 결과 육질등급 1+ 이상 판정을 받은 한우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인증 등을 받은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